

제38호(2012.12.28)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 동 원 박 혜 진

1. 조사 개요	3
2.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과 의식 변화	4
3.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와 생활환경 인식	13
4.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평가와 새정부의 과제	19
5. 시사점	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박준기** 연구위원 02-3299-4173 jkpark@krei.re.kr
내용 문의: **김동원** 연구위원 02-3299-4227 dongweon@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약 ◇

“201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서 농업인들의 의식이 ‘농촌생활’은 긍정적으로, ‘농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음. 농촌생활 여건 만족도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하지만 직업만족도는 2년째 하락하고 있으며, 10년 후 농업 상황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이 희망적인 전망의 2배에 달하는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표출되었음

도시민 10명 중 9명은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하고, 국가는 농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답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표에서는 농업·농촌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음.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비율과 세금 추가부담 의향이 감소하고 있고, 10명 중 6명은 ‘개방이 확대될수록 소비자는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국산농산물 구매 충성도는 최근 3년째 하락해 34.1%에 머물렀음

도시민 10명중 5명은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지원정책을 모른다는 응답이 44.7%에 달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주거환경 및 삶의 질 만족도는 도시민과 농업인의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남

현 정부 5년간의 농정에 대해서는 ‘생산기반 정책’ ‘귀농·귀촌 정책’을 잘한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정책’ ‘농가 소득안정 정책’을 잘 챙기지 못한 정책으로 평가하였음. 농업의 위협요소로는 ‘개방 확대’, ‘농가인구 고령화’를 대표적으로 꼽았으며, 농업인들은 특히 ‘기상이변과 재배여건 변화’도 큰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차기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농업 정책분야로 도시민은 농업>식품>농촌순으로 꼽았고, 농업인은 농업>농촌>식품순으로, 전문가는 농촌>농업>식품순으로 응답하여 우선순위에 견해 차이가 있었음

차기정부가 해결해야 할 농업문제로는 ‘고령화 및 인력부족’을 가장 우선으로 하여 ‘도·농 소득격차’, ‘유통구조 개선’도 주요 해결과제로 꼽았음. 농업예산 배분에 대해서 도시민은 ‘식품안전’, 농업인은 ‘식량자급률’, 전문가는 ‘농업경쟁력’에 우선 투자를 주문하였음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인 도시민, 그리고 전문가의 다양한 정책 수요가 파악되었음. 향후 농업·농촌 비전 제시와 정책 수립에 이같은 의견이 반영되어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되길 기대함

1. 조사 개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와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연구에 활용하고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매년 말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음¹⁾

이번 조사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파악하고 현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 차기정부의 정책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로 설계하여 방문면접,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함

조사는 2012년 10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도시민과 농업인, 전문가 그룹 등 2,8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도시민 1,500명, 농업인 632명, 전문가 86명이 응답해 유효 조사표 2,218건을 확보하여 분석함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 및 농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식,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새정부 농정에 대한 기대와 수요, 농업개방과 대책에 대한 견해, 농촌생활 만족도와 생활의식 등이며 이 자료에서는 주요 조사결과를 정리하였음

<표본 선정과 응답자 현황>

- 도시민(면접 1,500명): 전국 도시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 할당 표본추출, 1:1 방문 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2.5%p>
- 농업인(응답자 632명): 당 연구원 전국 현지통신원 1,000명 대상 우편조사
<당 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은 연구활용 목적으로 구성된 농가로, 각 특성별 분포는 농촌사회 평균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음에 유의>
- 전문가(응답자 86명): 농업계 및 비농업계 학자와 연구자 350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86명)의 52.4%가 농업계 전문가로 분류됨

1) 이 조사는 1978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다가 2006년부터 도시민을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식조사로 확대하였고, 2009년 전문가 그룹을 추가함. 연구활용이라는 조사목적에 부합하고 과거 조사연계 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여론조사와 패널형태의 조사를 병행함

2.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과 의식 변화

□ 농촌 생활여건 만족도 2006년보다 2배 증가

- 현재의 농촌 생활여건에 대해 농업인 응답자 32.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불만이다’ 33.4%, ‘그저 그렇다’ 34.0%로 나타남
 -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 16.5%에서 2012년 32.4%로 15.9%p나 증가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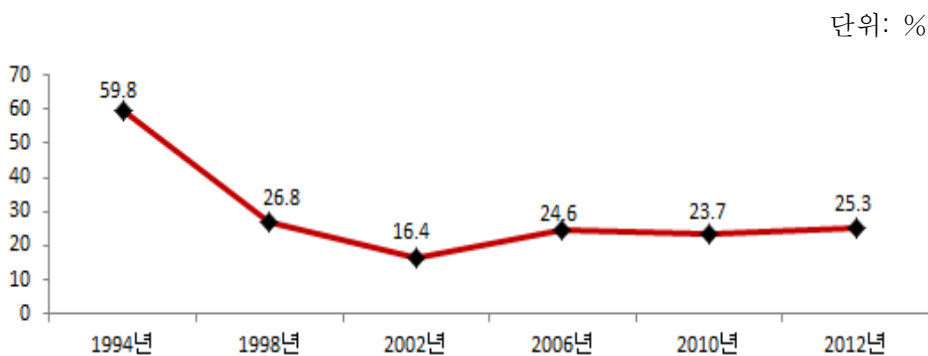
표 1. 농업인들의 농촌 생활여건 만족도

단위: %(명)

구 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매우 만족한다	1.2	3.2	2.5	3.2(20)
약간 만족한다	15.3	19.5	20.8	29.3(185)
만족(소계)	16.5	22.7	23.3	32.4(205)
그저 그렇다	40.6	39.9	38.4	34.0(215)
약간 불만이다	31.7	24.3	28.3	27.4(173)
매우 불만이다	10.2	12.5	9.9	6.0(38)
불만(소계)	41.9	36.8	38.2	33.4(211)
합계	100.0	100.0	100.0	100.0(632)

- 5년 전과 비교한 올해 농촌 생활수준 변화에 대해서는, ‘좋아졌다(25.3%)’는 긍정적 인식보다는 ‘나빠졌다(32.9%)’는 부정적 인식이 더 많았으나 긍정적인 인식도 최근 3년째 상승하고 있음. 한편 전문가는 40.7%가 향상되었다는 견해를 보여 양 그룹 간 인식차이가 컸음

그림 1. 5년 전과 비교한 농촌생활 수준 변화 인식(향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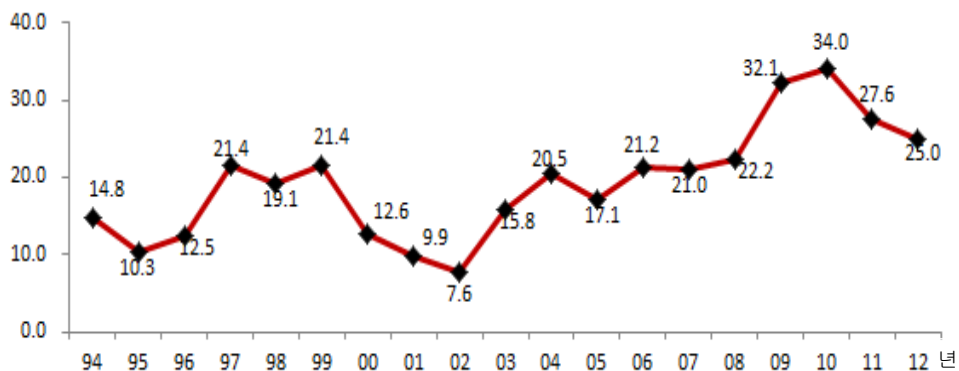
- 농업인은 5년 후의 농촌생활 전망에 대해서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 이라고 11.7%가 긍정적으로 인식한 반면 ‘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3배 가까이 높은 38.4%로 나타났음. 전문가는 27.9%가 5년 후를 긍정적으로 전망해 농업인보다 긍정적으로 보았음

□ 농업인 4명 중 1명만 ‘직업에 만족’, 2년째 직업만족도 하락

-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는 2010년 34.0%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1년 27.5%, 올해 25.0%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인구 특성별로 만족한다는 응답을 살펴보면, 60세 이상보다 60세 미만이 12%p 높으며,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가장 높았음. 작목별로는 과수 농가가 가장 높으며, 연평균 소득별로는 2천만 원 이상 농가가 2천만 원 미만 농가에 비해 만족도가 19.7%p 높게 나타남
-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불리한지,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농업인 10명 중 5명이 ‘본인 하기에 달렸다(48.7%)’고 답하였으며, ‘불리하다’는 응답은 39.6%로 나타났음. ‘유리(4.0%)’하거나 ‘비슷(5.7%)’하다는 응답은 10% 미만이었음
 - 계층별로 ‘본인 하기에 달렸다’는 응답은 60세 이상, 시설원예 농가 계층에서 높았으며, ‘불리하다’는 응답은 60세 미만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2. 농업인 직업만족도 변화(만족+매우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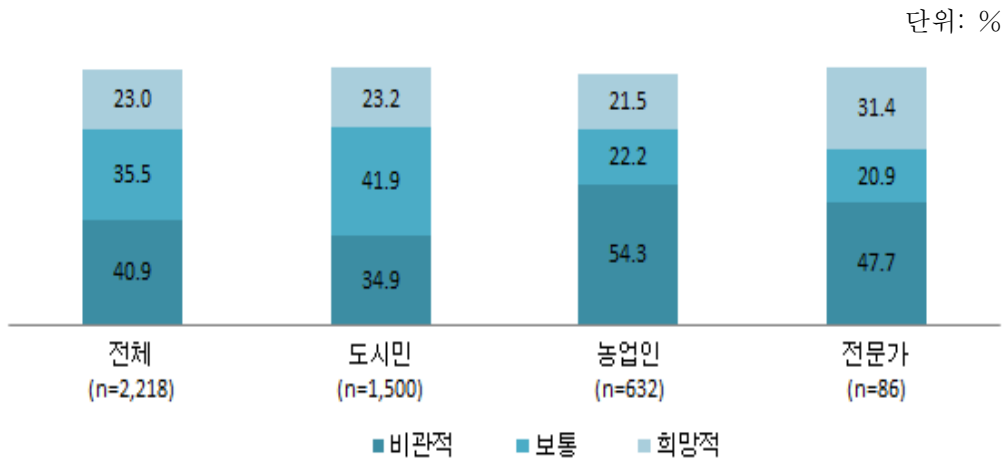
단위: %



□ ‘10년 후 농업상황 희망적’이라는 인식은 전문가와 농업인 모두 하락

- 10년 전과 비교한 우리나라 농업 상황에 대해서는 ‘좋아졌다’는 응답이 농업인 44.1%, 전문가 44.2%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나빠졌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각 32.1%, 44.2%로 나타나 전문가 그룹에서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인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10년 후 우리나라 농업 상황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전망한 비율은 전문가 31.4% > 도시민 23.2% > 농업인 21.5% 순으로 나타났음. 비관적이라는 응답은 농업인 54.3% > 전문가 47.7% > 도시민 34.9%로 그룹 간 상황인식에 큰 차이를 보인 가운데 농업인의 부정적인 인식비율이 높았음
- 2010년 조사결과 ‘희망적’이라는 긍정인식이 전문가 42.2%, 도시민 29.9%, 농업인 25.5%인 것에 비하면 이번 조사에서 각각 10.8%p, 6.7%p, 4.0%p 하락하였음

그림 3. 10년 후 우리나라 농업상황 전망



□ 도시민과 전문가 10명 중 9명 ‘국가경제에서 농업 중요’

-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응답이 도시민 89.6%, 전문가 89.5%, 농업인 83.7%로 나타남
- 연도별로 보면, 도시민과 전문가는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90% 내외

가 동의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긍정적인 인식비율도 매년 5%p 정도 증가하고 있음

표 2. 국가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 인식 변화

단위: %(명)

구 분	2006년		2010년			2012년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전문가	도시민	농업인	전문가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	81.4	60.2	57.7	58.6	84.4	70.7(1,060)	64.7(409)	73.3(63)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	7	11.9	30.7	20.2	7.8	18.9(284)	19.0(120)	16.3(14)
앞으로 중요할 것(소계)	88.4	72.1	88.4	78.8	92.2	89.6(1,344)	83.7(529)	89.5(77)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치 않을 것	3.3	10.2	7.1	11.2	-	4.5(67)	7.0(44)	4.7(4)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	8.3	16.7	4.6	9.2	6.3	5.9(89)	8.2(52)	5.8(5)
앞으로 중요치 않을 것(소계)	11.6	26.9	11.7	20.4	6.3	10.4(156)	15.2(96)	10.5(9)
모름/무응답	-	1.1	-	0.9	1.6	-	1.1(7)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1,500)	100.0(632)	100.0(86)

□ 농업·농촌 역할로 ‘전원생활 공간’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농업·농촌의 역할 중 현재 중요한 역할로 도시민과 농업인, 전문가 모두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자연환경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전통문화 계승’> ‘전원생활 공간’> ‘관광 및 휴식장소’ 순으로 응답하였음

- 특히 전문가 그룹은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45.4%로 도시민과 농업인에 비해(각 39.3%, 39.0%) 높게 인식하였음

○ 미래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중요도 순서는 대체로 유지하고 있으나 항목 간 비중 차이가 크게 줄어 미래에는 농업·농촌의 역할이 식품공급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미래에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이어 중요해질 역할로 전문가는 ‘자연환경 보전’을 꼽은 반면, 도시민과 농업인은 ‘전원생활의 공간’을 꼽고 있어 인식의 차이를 보였음. 특히 ‘전원생활의 공간’은 현재 역할보다 3배 가까이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그림 4. 미래 중요해질 농업·농촌 역할 인식

단위: %

미래	전체(n=2,218)	도시민 (n=1,500)	농업인 (n=632)	전문가 (n=86)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36.2 44.0	43.3	40.5	80.2
국토의 균형발전	14.6 25.5	24.9	27.1	25.6
자연환경 보전	14.2 32.9	34.4	29.1	33.7
전통문화의 계승	11.6 24.9	29.7	15.7	10.5
관광 및 휴식의 장소	11.3 26.8	29.3	21.0	24.4
전원생활의 공간	9.0 36.0	38.0	33.5	19.8
기타	0.1 0.2	0.2	0.3	0.0
모름/무응답	2.8 2.9	0.1	9.8	2.3

□ 도시민 10명 중 6명은 “농산물 시장개방될수록 소비자에 유리”

- 농산물 시장이 이미 지나치게 개방되었다는 인식은 도시민이 82.2%로 전문가(75.5%), 농업인(69.8%)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으며, 개방이 확대되면 농업·농촌경제가 위협하다는 인식도 도시민이 농업인보다 9%p 높은 84.5%로 나타나 개방에 대한 우려는 도시민이 더 크게 느끼고 있음
-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수록 소비자가 유리하다는 인식은 도시민이 60.5%, 농업인 55.5%, 전문가 38.4%로 나타나 전문가 그룹이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음. 국가는 농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도시민 92.3%, 농업인 94.8%, 전문가 93.0%로 나타나 대체로 국가가 농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였음
- 농업개방에 따른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전문가 26.7%, 농업인 18.5%, 도시민 15.1%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농업인(60.4%)이 도시민(48.5%)이나 전문가(52.3%)보다 더 높았음

표 3.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견해

단위: %

구 분	도시민		농업인		전문가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미 지나치게 개방	82.2	17.8	69.8	25.8	75.6	22.1
개방되면 농가/농촌경제 위협	84.5	15.5	75.5	20.1	83.7	16.3
개방될수록 소비자 유리	60.5	39.5	55.5	39.9	38.4	60.5
국가는 농업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	92.3	7.7	94.8	2.4	93.0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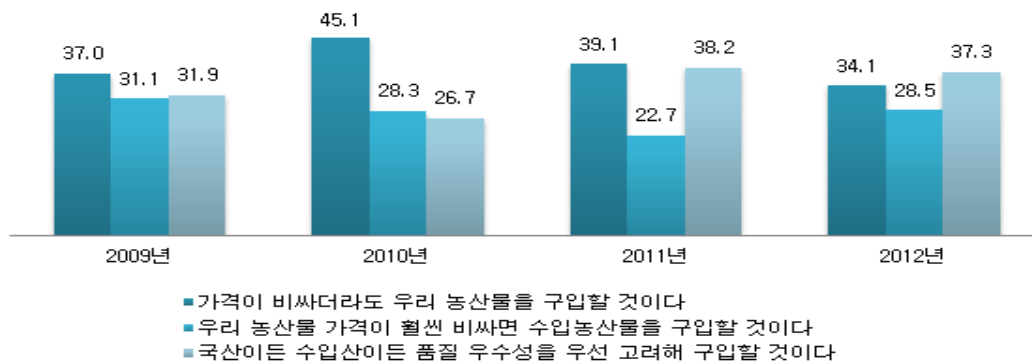
□ 우리농산물 구매 충성도 2010년 이후 지속 하락해 34.1% 그쳐

○ 도시민들에게 농산물 시장이 현재보다 더 개방된다면 농산물 구입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조사한 결과,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37.3%)’가 가장 많아 실리적인 구매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34.1%)’, ‘우리 농산물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28.5%)’ 순으로 응답하였음

- 연도별로 보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라는 국산농산물에 대한 강한 충성도는 2010년 45.1%에서 매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가 소폭 하락한 반면, ‘우리 농산물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는 소폭 상승하였음

그림 5.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시 농산물 구입 계획

단위: %



□ 농업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개방에 따른 수입 농식품 확대’ 꼽아

- 농업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는 ‘개방에 따른 수입 농식품 확대’> ‘농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기반 약화’> ‘유통구조와 수급 불안정’> ‘도농 간 소득양극화 확대’> ‘기상이변과 재배여건 변화’순으로 응답하였음
 - 농업인은 ‘수입 농식품 확대’, ‘고령화로 생산 기반 약화’순으로 응답한 반면, 도시민과 전문가는 ‘고령화로 생산 기반 약화’, ‘수입 농식품 확대’ 순으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음. 또한 농업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여건 변화’가 31.5%로 타 그룹에 비해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농업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 인식

단위: %

	전체 (n=2,218)		도시민 (n=1,500)	농업인 (n=632)	전문가 (n=86)
FTA 등 개방에 따른 수입 농식품 확대	42.4	55.0	53.7	57.6	59.3
농가인구 고령화로 생산 기반 약화	25.0	51.8	54.6	43.8	62.8
도농 간 소득양극화 확대	7.8	20.1	22.9	13.8	17.4
농업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과 투자반대	6.6	17.1	17.4	15.7	23.3
불합리한 농식품 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	9.7	24.9	29.2	15.8	17.4
국제 곡물가 상승 등 국제 상황 변화	2.8	9.1	8.9	10.1	5.8
생산 기술 등 관련 연구 부족	1.5	5.0	5.6	3.3	5.8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여건 변화	3.1	14.4	7.7	31.5	7.0
모름/무응답	1.1	2.1	0.0	7.3	0.0

■ 1순위
■ 1+2순위

- 농업·농촌과 관련된 메가트렌드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세계경제 불안과 시장개방 가속화(23.9%)’,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의 중요성 강조(22.0%)’,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21.1%)’가 20% 이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음
 - 그룹별로 도시민은 ‘세계경제 불안과 시장개방 가속화’, 농업인과 전문가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를 1위로 꼽아 다소 견해 차이를 보였음

그림 7. 농업·농촌 관련 메가트렌드에 대한 견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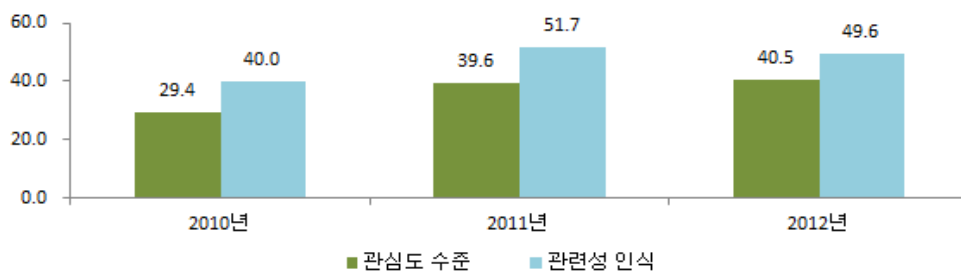
	전체(n=2,218)	도시민 (n=1,500)	농업인 (n=632)	전문가 (n=86)
세계경제 불안과 시장개방 가속화	23.9	28.1	13.9	24.4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의 중요성 강조	22.0	22.4	23.3	4.7
융복합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생산성/고부가가치 농업 구현	15.5	17.1	11.1	19.8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21.1	18.3	25.9	36.0
농촌의 초고령화 사회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16.2	14.1	21.5	14.0
없다/모름/무응답	1.2	0.0	4.3	1.2

□ 도시민의 '농업·농촌 관심도' 증가, 상황 인지는 낮은 편

- 도시민을 대상으로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은 '많다(40.5%)'고 응답하여 관심이 '없다'는 부정적 인식(30.3%)보다 긍정적 인식이 10.2%p 높게 나타났음
 - 최근 3년간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응답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도시민들 중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의 문제가 나와 '관계 있다'는 응답이 49.6%, '관계 없다'는 응답이 46.1%로 비슷하게 나타났음
 - 연도별로 보면, '관계 있다'는 응답이 소폭 하락하였음

그림 8.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도와 관계성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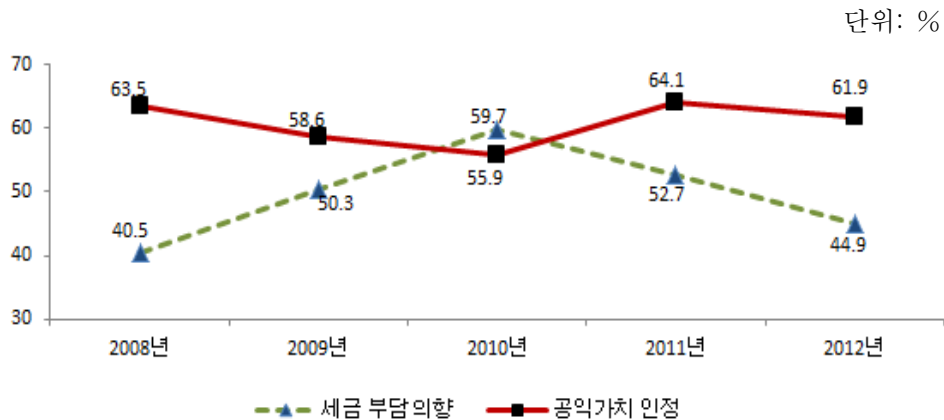


- 도시민들의 농업의 실상과 농촌문제 인지 수준은 ‘알고 있다’가 35.2%로 ‘모른다(29.0%)’에 비해 6.2%p 높게 조사되었음
 - 응답자 특성별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남자, 60세 이상, 자영업자 그룹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젊은 층에서 낮게 나타나 이들 그룹을 대상으로 한 농업 실상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농촌의 긍정적 이미지에 대해서는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31.0%)’과 ‘전원주택에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곳(30.7%)’이 각각 1, 2위로 나타났음
 - 부정적 이미지에서는 ‘복지시설이 미흡한 곳’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시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30.6%)’이 2위로 조사되었음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인정과 세금 부담의향 감소 ‘뚜렷’

- 농업·농촌의 기능 중 먹거리 생산 외에 자연과 전통보존, 휴식장소 제공 등을 의미하는 공익적 기능의 가치에 대해 도시민 10명 중 6명이 다원적 기능이 ‘많다(61.9%)’고 응답하였으며, ‘없다’는 응답은 4.9%에 불과하였음
 - 모든 그룹에서 다원적 기능이 ‘많다’는 응답이 과반인 가운데 40대, 화이트칼라 그룹에서 특히 다원적 기능을 높게 인정하였음
 - 다원적 기능이 ‘많다’는 응답은 전년(64.1%)보다 소폭 하락하였음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세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한 결과, ‘반대(47.9%)’하는 입장과 ‘찬성(44.9%)’하는 입장이 비슷하게 나타났음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세금부담 찬성은 40대,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반대는 3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음
 - 연도별로는 지난 2010년 59.7%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52.7%에 이어 올해 44.9%로 크게 하락하였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가 요구됨

그림 9.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견해(도시민 찬성 의견)



3.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와 생활환경 인식

□ 농촌 ‘휴양과 전원생활 도움되는 곳’, ‘복지와 주거환경 열악’

- 도시민들은 농촌의 긍정적 이미지에 대해서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31.0%)’과 ‘전원주택에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곳(30.7%)’, ‘노후 생활에 적합한 곳(19.1%)’, ‘인정이 풍부하고 전통적인 풍속이 남아있는 곳(14.7%)’을 꼽았음

- 부정적 이미지로는 ‘복지시설이 미흡한 곳’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시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30.6%)’, ‘가난하고 힘들고 비전이 없는 곳(8.9%)’, ‘자연 재해와 병충해가 되풀이 되는 곳(6.9%)’, ‘지저분하고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곳(6.5%)’순으로 조사되었음

□ 도시민, 농업정책 중 ‘안전한 식품공급’에 가장 관심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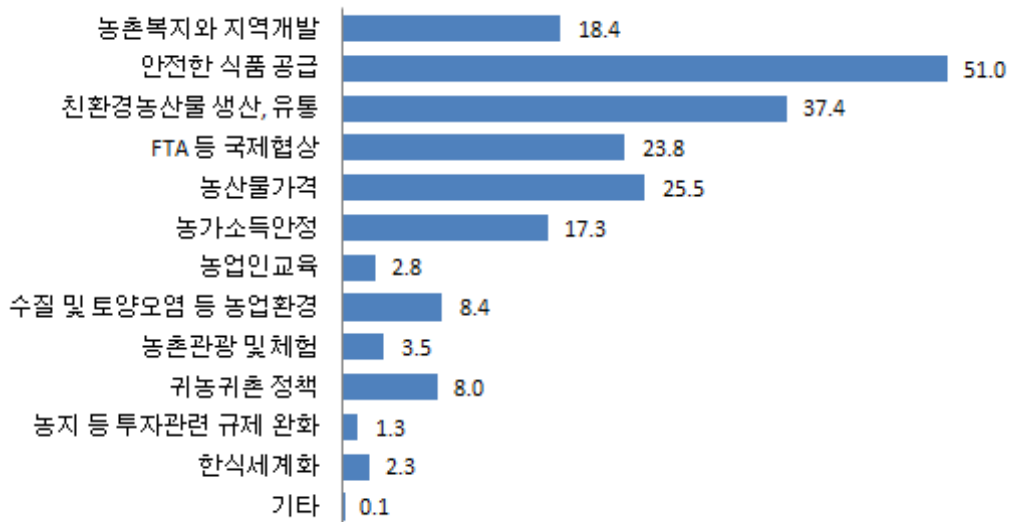
- 도시민들은 최근 가장 관심이 많은 농업정책 분야로 ‘안전한 식품 공급(51.0%)’을 가장 많이 꼽았음.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37.4%)’, ‘농산물가격(25.5%)’, ‘FTA 등 국제협상(23.8%)’ 순으로 조

사되었음

- ‘안전한 식품 공급’에 대한 정책수요는 여자와 주부, 40대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은 화이트칼라와 주부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음

그림 10. 도시민이 최근 가장 관심있는 농업정책 분야(중복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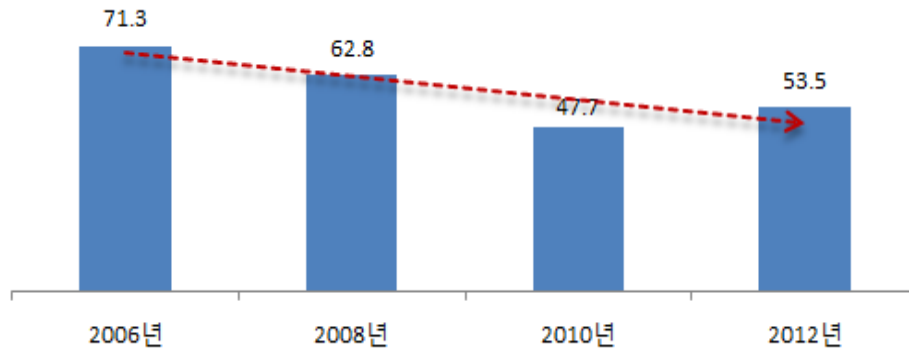
□ 도시민 “농촌 거주 의향 있다” 53.5%, 44.7%는 “지원프로그램 몰라”

○ 향후 농촌 거주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5%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없다’는 응답은 46.5%로 비슷하게 나타났음.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향후 농촌 거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대체로 고연령, 자영업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없다’는 응답은 대체로 저연령층, 학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작년 조사에 비해서는 농촌 거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소폭 하락하였음

그림 11. 도시민의 향후 농촌거주 의향 변화

단위: %



- 농촌에서 생활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로는 10명 중 6명이 ‘자연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58.7%)’라고 응답하였음. 다음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14.6%)’, ‘안전식품을 자급하기 위해(7.8%)’, ‘생계의 한 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7.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서라는 응답은 젊은 층 일수록, 안전식품 자급은 30, 40대의 화이트칼라 층에서, 생계 수단이라는 응답은 40대의 자영업자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음
- 구체적 귀농·귀촌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6%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0년 이후’가 20.5%로 나타나 10명 중 8명은 당장 실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반면, ‘10년 내’ 이전하겠다는 응답은 9.3%로 조사되었음. 5년내 3.6%, 3년 내 1.9% 등 전체 14.8%는 구체적인 일정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정도는 ‘알고 있다(구체적으로 1.5%+약간 53.5%)’는 응답이 55.0%, ‘전혀 모른다’가 44.7%로 알고 있는 응답자가 10%p 가량 높게 조사되었음
 - 응답자 특성별로는, ‘알고 있다’는 40대, 50대, 화이트칼라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혀 모른다’는 대체로 저연령 일수록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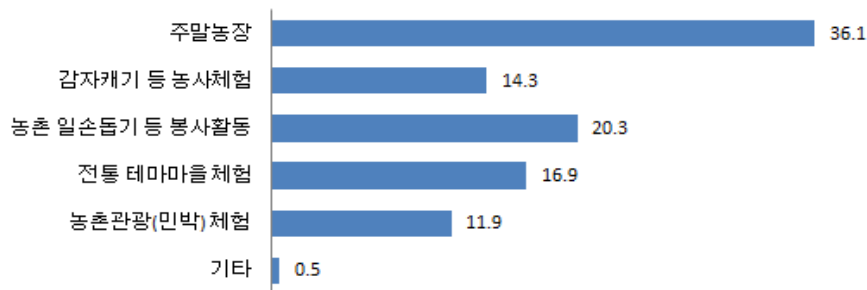
- 귀농·귀촌을 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생활할 수 있는 수입원’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사 기술 등 귀농프로그램’, ‘마음의 준비(결심)’,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 ‘이주에 필요한 자금’ 순으로 나타났음 - 40, 50대 블루칼라 층은 수입원을, 마음의 준비는 60세 이상 그룹에서, 가족설득은 연령이 높고 화이트칼라 층에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 교육 여건에 대한 필요성은 젊은 층 일수록 높게 나타났음

□ 도시민 ‘주말농장’ 수요 많고, 농촌 관광 시 ‘숙박’ 가장 불편

-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은 36.1%가 ‘주말농장’이라고 응답하였음. 다음으로 ‘봉사활동(20.3%)’, ‘전통테마마을 체험(16.9%)’, ‘농사체험(14.3%)’, ‘농촌관광(민박) 체험(11.9%)’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12. 도시민이 농촌에서 하고싶은 활동

단위: %



- 농촌에서 여가활동이나 관광여행을 할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31.8%가 ‘숙박시설’이라고 응답하였음. 다음으로 ‘교통’이 22.0%, ‘주변환경 청결 미흡’이 13.3%순으로 나타났음. 농촌에서 여가활동을 ‘해본 적 없다’는 응답도 10.5%로 나타났음 - 숙박시설에 대한 불편은 40대, 주부, 학생층이 타계층보다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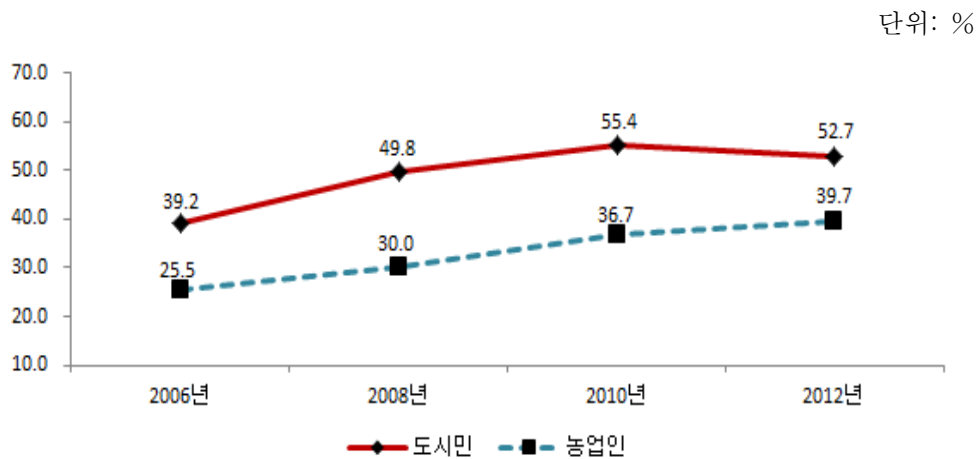
□ 주거환경과 삶의 질 만족도 도시민과 농업인 격차 좁혀져

- 현 거주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민의 경우에 52.7%로 나

타났고, 농업인은 2006년(25.5%)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 39.7%로 나타났음

- 연도별 변화를 보면 도시민은 2006년 39.2%, 2008년 49.8%, 2010년 55.4%, 2012년 52.7%로 나타났고, 농업인은 같은 기간 각 25.4%, 30%, 36.8%, 39.7%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환경에 대한 도시민과 농업인의 만족도 격차는 2006년 13.8%p에서 2010년 18.7%p로 벌어졌다가 다시 2012년에는 13.3%p로 좁혀졌음

그림 13. 현 거주지 주거환경 만족도



○ 분야별 지역환경과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주거환경은 도시민이 61.1%, 농업인이 45.6%로 15.5%p 차이를 보였고, 교육환경은 도시민 55.1%, 농업인 20.3%로 34.8%p 차이, 대중교통 환경은 도시민 67.1%, 농업인 34.0%로 33.1%p 차이를 보여 교육환경 만족도 격차가 뚜렷이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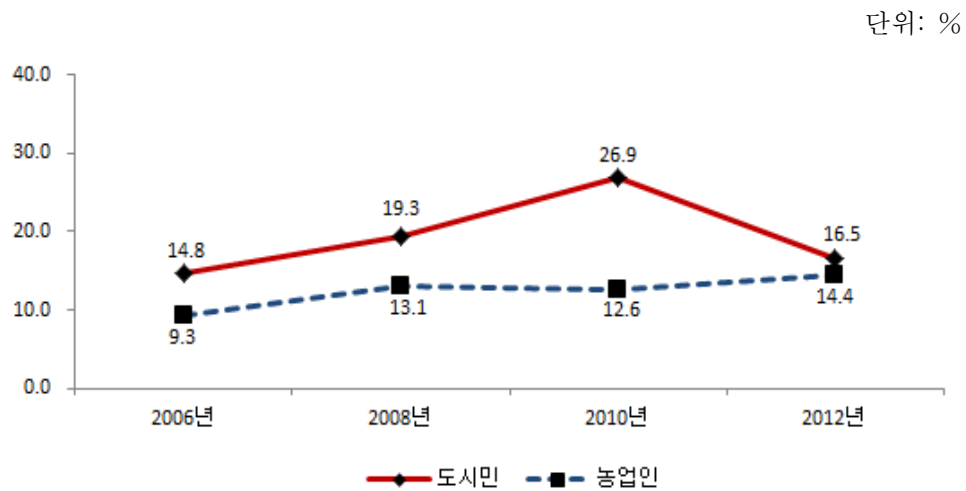
- 이밖에 쓰레기 등 환경관리는 도시민 49.4% 농업인 26.1%를, 보건의료 환경은 도시민 62.5%, 농업인 29.0%를, 문화체육 여가환경은 도시민 49.4%, 농업인 16.9%, 소득원/일자리 환경은 도시민 37.3%, 농업인 5.4%, 이웃환경은 도시민 51.3%, 농업인 20.9% 수준으로 조사됨

○ 나와 우리 가족 삶의 질 수준에 대해서는 도시민이 5점 만점에 3.01점, 농업인이 2.92점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만 보

면 도시민이 16.5%, 농업인이 14.4%로 나타남

- 삶의 질 수준에 대한 긍정인식을 연도별로 보면, 도시민은 2006년 14.8%, 2008년 19.3%, 2010년 26.9%로 상승세에 있다가 2012년 16.5%로 크게 낮아졌음. 농업인은 같은 기간 각 9.3%, 13.1%, 12.6% 14.4%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음
- 삶의 질 수준에 대한 도시민과 농업인의 만족도 차이는 2006년 5.5%p에서 2009년 7.5%p로 확대되었다가 2012년 2.1%p 차이로 크게 좁혀짐

그림 14.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



- 농촌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도시민 응답자의 56.1%가 ‘찬성’하였으며, ‘반대’는 12.1%에 불과하였음.
 - ‘찬성’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은 층과 자영업자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반대’는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도별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4.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평가와 새정부의 과제

□ 전문가, 현 정부 가장 잘한 농업정책으로 '귀농·귀촌 정책' 꼽아

- 올해 정부가 추진한 농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농업인들은 5점 만점에 2.52점, 전문가 2.53점으로 평가했으며, 세부적으로 농업인은 불만족이 만족한다는 응답의 4배, 전문가는 3.3배로 나타나 농업인의 평가가 더 낮았음
- 현 정부 5년간의 농정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2.76점으로 나타났으며, 잘못했다는 부정 평가가(35.2%) 잘했다는 긍정평가(16.6%)보다 2배 이상 높았음
 - 그룹별로도 인식에 차이를 보여 농업인이 3.14점, 도시민 2.63점, 전문가 2.23점 등으로 나타났음

표 4. 현정부 주요 농업정책 평가

단위: %

구 분	잘한 정책			잘못한 정책		
	전체 (n=718)	농업인 (n=632)	전문가 (n=86)	전체 (n=718)	농업인 (n=632)	전문가 (n=86)
농업 생산기반 정책	42.5	44.1	30.2	7.4	7.3	8.1
귀농, 귀촌 촉진정책	39.4	38.0	50.0	8.2	8.5	5.8
친환경 농업 정책	35.7	35.4	37.2	9.3	9.7	7.0
한식 세계화 및 농산식품 수출 정책	19.8	18.8	26.7	7.4	6.6	12.8
농업분야 후계인력 양성 정책	19.2	20.4	10.5	19.4	19.5	18.6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 관리 정책	18.0	17.9	18.6	18.8	18.2	23.3
농촌 복지 정책	16.0	17.2	7.0	19.1	18.0	26.7
농촌 주거환경 개선 정책	15.2	16.0	9.3	7.2	7.6	4.7
식품산업 육성 정책	12.0	9.2	32.6	4.2	4.1	4.7
농식품 위생, 안전 정책	10.4	10.3	11.6	6.4	6.8	3.5
농촌 환경, 경관 보전 정책	8.2	8.2	8.1	7.1	6.8	9.3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책	8.1	8.5	4.7	29.7	29.4	31.4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7.1	7.4	4.7	45.3	45.6	43.0
농가 소득안정 정책	5.7	6.0	3.5	35.1	36.6	24.4
새로운 성장 분야 발굴, 육성 정책	4.7	3.8	11.6	8.9	7.8	17.4
농촌 산업 정책	3.3	3.2	4.7	18.5	18.4	19.8
농어업 분야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2.2	2.1	3.5	23.4	22.2	32.6
모름/무응답	7.5	7.8	5.8	7.0	7.6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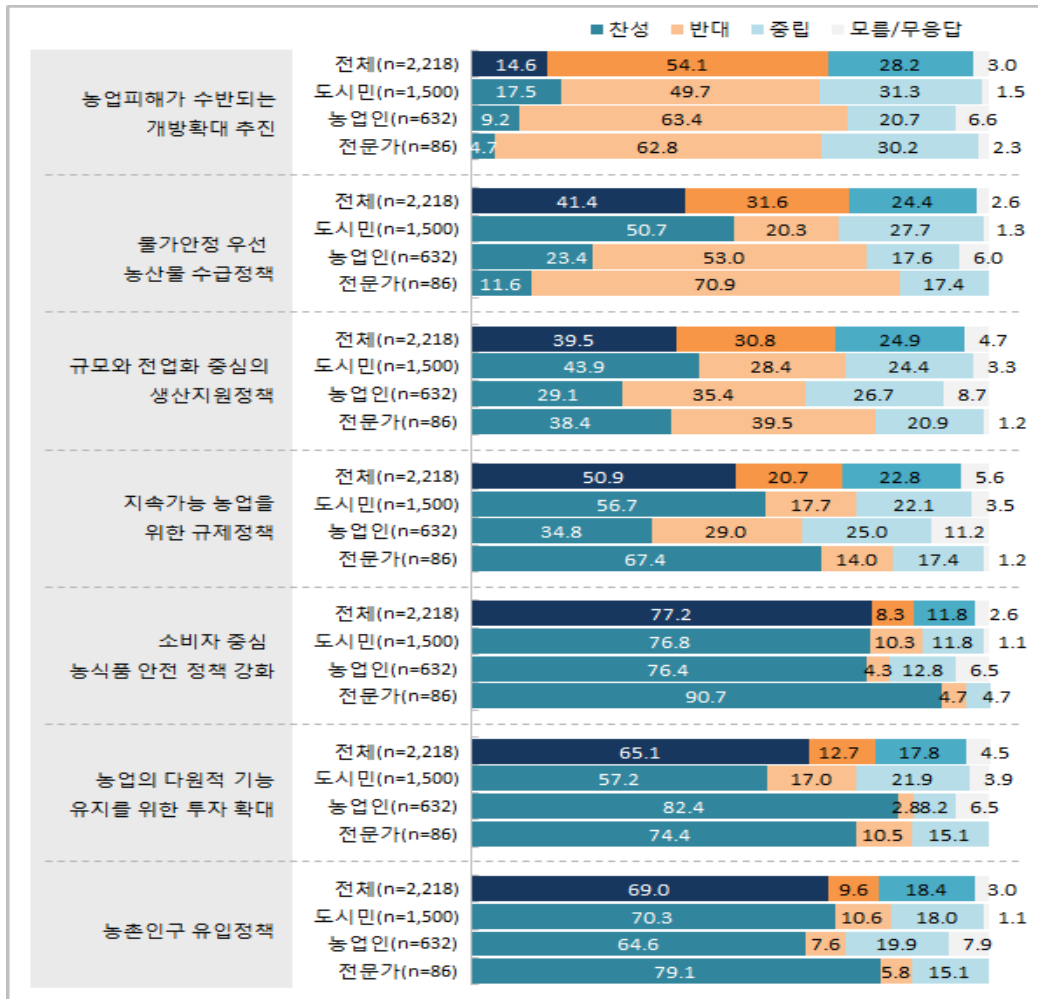
-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한 17개 세부 정책에 대해 잘한 정책으로 농업인은 ‘농업 생산기반’> ‘귀농·귀촌 촉진정책’> ‘친환경 농업정책’을 꼽았음 반면, 전문가는 ‘귀농·귀촌 촉진정책’> ‘친환경 농업정책’> ‘식품산업 육성정책’을 꼽아 농업인과 인식 차이를 보였음
 - 한편, 잘못된 정책으로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농가 소득 안정정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정책’> 순으로 응답한 반면, 전문가는 ‘소득안정 정책’ 대신 ‘국제협상과 국제협력’을 두 번째 잘못된 정책으로 꼽았음

□ 소비자 중심의 농산물 가격정책 찬성률 도시민이 농업인의 2배

- 농업분야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그룹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농업분야 피해를 수반하는 개방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도시민 17.5%가 찬성한 반면, 농업인은 9.2%, 전문가는 4.7%만이 찬성하여 대조를 보였음. 반대의견도 도시민이 49.7%, 농업인과 전문가는 각 63.4%, 62.8%로 차이를 보였음
 - 소비자 중심의 농산물 물가안정 정책에 대해서는 도시민이 50.7%의 찬성을, 농업인이 23.4%, 전문가 11.6%가 찬성하여 인식차이를 보였음. 반대 입장은 도시민이 20.3%에 그친 반면, 농업인 53.0%, 전문가 70.9%가 반대하여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였음
 - 지속 가능 농업을 위한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도시민과 전문가가 각 56.7%, 67.4%의 찬성을 보인 반면, 농업인은 34.8%만 찬성하여 농업인의 부정적인 반응이 뚜렷이 높았음
 - 이밖에 소비자 중심의 농식품 안전정책,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투자, 농촌인구 유입정책 등은 반대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뚜렷이 높았음

그림 15. 농업·농촌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견해

단위: %



□ 차기 정부 ‘농촌인구 고령화 및 인력 부족’ 해결 가장 관심됨

○ 차기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농업 관련 정책분야로는 ‘농업정책(47.2%)’이 1위였고, 그 다음은 ‘식품정책(27.5%)’과 ‘농촌정책(24.1%)’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음

- 그룹별로 보면, 도시민은 농업>식품>농촌순으로 꼽았고, 농업인은 농업>농촌>식품순으로, 전문가는 농촌>농업>식품순으로 응답하여 계층별로 우선 순위에 견해 차이를 보였음

○ 차기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농업 문제는 ‘농촌인구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도-농 소득격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꼽았음.

- 도시민은 유통구조 개선과 도-농 소득격차를, 농업인은 도-농 소득격차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을, 전문가는 도-농 소득격차와 유통구조 개선을 1순위 다음으로 중요하게 꼽아 그룹 간 차이가 있었음

그림 16. 차기 정부가 가장 관심 갖고 해결해야 할 농업문제 인식

단위: %

	전체(n=2,218)	도시민(n=1,500)	농업인(n=632)	전문가(n=80)
도-농 소득격차	33.1	31.8	36.2	32.6
농촌인구 고령화 및 인력부족	50.8	52.3	45.9	60.5
농가부채 증가	20.6	22.1	19.5	2.3
농산물 유통구조	30.4	36.9	15.3	27.9
수입농산물 증가	13.2	14.5	10.3	11.6
비료, 농약 등 원자재가격 상승	16.5	11.8	29.4	4.7
정부지원 부족	9.9	9.4	12.0	2.3
개방화에 대응한 정책 부재	15.6	12.8	20.4	30.2
농촌의 문화, 복지 낙후	7.8	8.1	5.1	23.3
기타	0.2	0.0	0.2	3.5
모름/무응답	0.8	0.0	2.7	0.0

○ 전문가에게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농업정책 1가지를 꼽으라는 개방형 질문에는 ‘농가 소득보전대책’, ‘영농후계자 양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산촌 복합산업화 지원’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음. 이 밖에도 ‘농어업 첨단시설 지원 특별법’, ‘직불제 금액 증액’, ‘목표 식량자급률 설정’ 등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음

○ 정부가 정해진 농업예산을 우선 배분해야 할 분야로 도시민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 농업인은 ‘식량 자급률 향상’, 전문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꼽았음. 도시민과 농업인은 2순위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꼽은 반면 전문가는 ‘식품 안전성 확보’를 꼽아 그룹 간 차이를 보였음

5. 시사점

- 2012년 국민의식조사에서 나타난 농업인들의 의식변화를 요약하면 ‘농촌생활’은 긍정적 인식이, ‘농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임
 - 농촌생활 여건과 농촌생활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주거환경과 삶의 질 수준 인식도 상승해 도시민과 격차를 좁히고 있음. 반면, 직업만족도가 2010년 이후 하락하고 있고, 10년 후 우리나라 농업 상황이 희망적이라는 응답도 21.5%로 하락함
-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인식은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수요자 또는 소비자로서의 태도에서는 실리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민 10명 중 9명은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하고, 국가는 농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10명 중 6명은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될수록 소비자는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국산농산물 구매 충성도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34.1%에 머물렀음
-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과 자신과의 관련성 인식은 낮아지고 있고, 농업 실상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35.2%에 그쳤음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비율과 세금 추가부담 의향도 하락해 각각 61.9%, 44.9% 수준에 머물러 농업의 역할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와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가 요구됨
- 농업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는 ‘수입식품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기반 약화’를 꼽은 가운데, 농업인은 ‘기상이변과 재배여건 변화’를 우려하고 비중이 높게 나타나 시장개방과 기상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도시민 10명 중 5명 정도는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이중 80%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귀농·귀촌 관련 지원정책과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4.7%이며,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인지도가 낮아 SNS 등을 통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도시민과 농업인의 주거환경 및 삶의질 만족도는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나 분야별 지역환경 만족도에서는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농업인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도시민에 비해 34.8%p나 낮은 것을 비롯해 보건, 대중교통, 문화체육 등 7개 분야에서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만족도가 20~30%p까지 낮게 나타남. 따라서 농촌지역 교육·문화·보건 인프라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현 정부 5년간의 농정에 대해서는 긍정평가(16.6%)보다 부정평가(35.2%)가 2배 이상 높은 가운데, 중점 추진한 농업정책 중에서는 ‘생산기반 정책’과 ‘귀농·귀촌 정책’을 잘한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정책’과 ‘농가 소득안정 정책’을 잘 챙기지 못한 정책으로 꼽았음
 - 소비자 중심의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에 대해서는 도시민 50.7%, 농업인 23.4%, 전문가 11.6%가 찬성하여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임으로써 향후 균형있는 물가안정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농업 문제로는 ‘고령화 및 인력부족’을 가장 우선으로 하며, ‘도·농 소득격차’, ‘유통구조 개선’도 관심 갖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였음
 - 정해진 농업예산 배분에 대하여 도시민은 ‘식품안전’, 농업인은 ‘식량자급률’, 전문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꼽아 견해 차이를 보임
-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인 도시민, 그리고 전문가의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와 정책수요 변화를 확인하였음. 향후 농업·농촌 비전 제시와 정책 수립에 이같은 각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되길 기대함

2012년

-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정원호)
-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윤재)
-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희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옥, 승준호)
-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회)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건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회)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조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2. 12. 27
발 행 2012. 12. 28
발 행 인 이동필
편집위원 김정호, 박준기, 이명기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375-4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